

## 2018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어드바이징 프로그램 : 박선영

자세히 알 순 없어도 쾌활하고 자족적인 창작 행위

반이정 미술평론가

<사진 파일 프로젝트 Photo Pile Project>(2012~)는 그 이름처럼 표면의 일부를 도려낸 사진들을 층층이 쌓아 올린 사진 작업으로, 정면에서 보면 사진의 부분이 움푹 파인 두툽한 사진 작업처럼 보일 뿐이다. 그렇지만 정작 움푹 파인 자리에 원래 자동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려울 만큼 모호한 형태로 파여있다. 작가에게 설명을 들은 후에도 간신히 식별될 만큼 도려낸 부위의 프로필이 차 모양을 닮고 있지 않다. 그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관객의 이해를 전제하기보다 작가 본인에게 중요한 작업 같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박선영은 이제까지 내가 창작 스튜디오에서 만나왔던 입주 작가들과는 상이한 작업관/작가관을 지닌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녀의 작업은 이런 남다른 작업관의 산물 같았고, 차라리 이런 작업관을 실마리로 작업을 풀어볼까 싶은 생각에 이르렀다. 박선영은 한국 미술계는 등급이 정해져 있고, 작가들에게 목적 지향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다고 한다. 이에 반해 그녀가 정주하지 않은 채 오가는 유럽 미술계는 작가 개인의 관점이 창작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다. 아마 첫눈에 식별하기 힘들 만큼 작가의 주관이 강한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유럽식 작업관이 반영된 결과일 지도 모르겠다.

자동차는 박선영의 주요 작업들에 관여하는 모티프다. 어느 날 차 안 가득 물건을 채운 채 주차해둔 차를 발견한 그녀는 이동수단으로서의 차의 기능이 상실되고 거주 공간처럼 변한 차의 모습에서 작업의 모티프를 얻는다. 이런 차의 모습은 정주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그녀의 외지 생활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2007년 이래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며 창작 생활을 불안정하게 이어가는 자신의 삶은 이동할 수도 있고 거주할 수도 있는 자동차의 기능에 감정이입되기 쉬웠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동차(의 속성)는 자신의 작업을 풀어낼 적당한 오브제로 선택된 것이다.

비단 <Photo Pile>같은 사진 작업 외에도 <Sunday Car>(2012)나 <Pony Me>(2015)같은 설치 작업은 차의 외관을 빌려 임시 거주지를 만든 것인데, 이 역시 차 모양을 차용한 건지 단번에 알아채기 어렵다. 차는 다만 정주하지 않은 작가의 삶을 매개하는 개념에 가깝다.

선명하게 전달되는 의미보다 자기언어와 자기만족에 충실한 이 작가는, 어딜 가건 현지에 작업하기에 최적화된 작업관을 지닌 것 같다. 정교한 테크닉에 의존하지 않아서, 그녀는 가방 하나에 카메라 USB 노트북 칼 사진전문가용 접착제 정도의 기본 창작 도구만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단다. 이쯤 되면 그녀의 작업관이 주변의 일상품을 신속하게 작품으로 둔갑시키는 원로 작가 주재환이 떠오르기도 한다.

지난 작업 이력을 확인하려고 그녀가 제작한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근래의 미디어 플랫폼과는 동떨어진 구식 디자인을 고집한 홈페이지는 폐쇄회로 같기도하다. 자신을 미술관(홈페이지) 관장으로 밝힌 자기소개 글에서 쾌활한 첫 인상처럼 유연한 생존력이 읽힌다.

“미술을 통해 모든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박선영 미술관은 미술의 권위주의와 선입견을 해소하고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